

우리춤사랑연구회
제4회 정기공연

세

飛

상

上



우리춤사랑연구회
정기공연
飛
세
상
上

공연문의
회장 010-4903-3800
총무 010-2580-3659

본 공연은 2011년 BS F 부산문화재단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의 일부지원으로 시행됩니다.

2011. **11.26**(토) pm6:00
부산예술회관공연장

| 주최: 우리춤사랑연구회 | 주관: 우리춤사랑연구회, 윤정미 무용단, 사단법인 문화두레
| 예술감독: 윤정미 | 총연출: 이성준 | 지도: 김예린 | 기획: 김정원 | 홍보: 신윤경
| 무대감독: 강혜란 | 조명: 권학철 | 음악: 황재심 | 의상: 김민경 | 진행: 이재영, 박선아
| 사진: 박창현 | 영상: 이브 스튜디오 | 디자인: 최재영 | 분장: 박서정

공연문의 / 회장: 추정자 010-4903-3800 / 총무: 함훈옥 010-2580-3659

우리춤사랑연구회
제4회 정기공연



세상





우리 전통문화에 음주가무는 빠지지 않았다.
 “맛” 하면 우리네 음식인 김치,
 “멋” 하면 산수화처럼 펼쳐진 풍경,
 “흥” 하면 가무악 그중에서도 전통춤 ...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소중한 세가지 요소라 생각합니다.

어느덧 나뭇잎이 오색의 물결로 수줍게 옷을 갈아입는 동안
 부산에서 개최된 전국무용제라는 큰 축제 속 시민 대동춤 공연에
 참여하며 한걸음 더 발전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우리 삶의 희노애락을 느낄 수 있는 춤
 마부위침(磨斧爲針)... 도끼를 갈아 바늘을 만든다는 뜻으로
 바쁜 일상생활 속에서도 열정을 다해 꾸준한 노력과 인내로
 결실의 열매를 수확하려합니다.

작년의 “꿈” 에 이어 올해는 “비상” 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무대를 올리고자 합니다.
 날개를 펴서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들의 마음을 춤으로
 보여드리고자 한 작품 한 작품마다 정성을 다해 준비를 하였습니다.

우리춤사랑연구회 회원들의 모습에
 박수와 격려를 보내주고 싶습니다.
 항상 믿고 함께해주신 우리춤사랑연구회
 회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부족하지만 무대에 올라갈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우리춤사랑연구회 예술감독 윤 정 미



이래 없던 폭우와 무더위로 기승 치던 여름을 보내고
 색색이 화려한 가을의 끝자락에,
 여러분들을 모시고 네번째 정기 공연을 하게 되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우리 춤에 대한 열정을 가진 주부들을 중심으로
 우리 춤 사랑 연구회가 결성된지도 올해 11년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기에 누구보다 힘써주신
 윤정미 선생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점이 많더라도 바쁘신 일정을 뒤로 하고
 오늘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이 시간들이 우리 춤에 대한 열정을 공유하고
 아름다움을 향유하는 소중한 감동을 주는 뜻 깊은 시간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윤정미 선생님, 이성준 선생님을 비롯한 단원 여러분과
 다락전통예술원 여러분들, 이 외 공연을 준비해주신
 여러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와 환영의 인사를
 드리면서 공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축복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중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 11월 26일
 우리 춤 사랑 연구회 회장 추정자(수)



1. 태평무

왕이나 왕비, 공주가 나라 즉 온 백성이 「태평성대하기를 축원하는 내용으로 범국가적인 차원의 춤으로 춤추기에 까다로운 진쇠장단을 기본으로 세밀한 발놀림과 빠른 장단에 맞추어 움직이는 민첩성으로 마치 한 그루의 난(蘭)같이 의젓하기도 하고, 때로는 경쾌하며 가볍고도 절도 있게 몰아치는 장단에 빠르게 듣는 발디딤새는 춤꾼으로서의 기량을 유감없이 보여준다.

출연 : 문복순, 김미자, 이보금, 함훈옥, 최복화, 강복실, 김현숙

2. 한량무

關良舞(한량무)는 전통과 권위 있는 사회질서를 기본적 틀로 하는 사대부 계층의 젊은 선비들의 생활 한 단면을 즉흥적으로 표현한 춤이다. 특히, 선비의 멋스런 諷諭(풍유)와 의젓함이 주조를 이루는 춤으로悠悠(유유)한 남성적 기품과 내면의 심성을 자유로운 감정으로 표현하는 고요한 역동성이 잘 나타나 있다.

출연 : 고번자, 이순호, 이미자, 문영숙, 안현옥

3. 진주교방굿거리춤

교방굿거리춤은 굿거리장단인 자진타령가락으로 시작하여, 엄불가락에서는 타령가락보다 자진가락이 많이 들어간다. 차분하면서 끈끈하고, 섬세하면서 애절한 느낌을 준다. 굿거리장단의 하나인 3분박으로 외마치 절굿보다 조금 빠른 자진 타령가락으로 시작하여 엄불가락에서 타령가락보다 자진가락이 많이 들어가며 춤 동작이 복잡하고 즉흥적이다.

출연 : 허숙자, 문복순, 구정옥, 함훈옥, 김영숙

4. 진도북춤

원래 농악의 한 부분으로 공연되어 오던 이 북춤은 인간문화재 박병천 선생이 다양하고 새롭게 안무한 작품이다. 다른 북춤은 북채 하나만을 사용하지만 진도에서는 양채 북으로 양쪽을 두드리면서 음악적 효과를 한층 더한다. 굿거리와 자진모리, 동살풀이, 다스름, 호성, 후두룩 가락으로 넘어가는 북장단은 화려하고 발놀림, 팔사위가 멋들어진다.

출연 : 문영숙, 이보금, 강복실, 김현숙



5. 살풀이춤

살풀이춤의 살풀이는 살(煞) 즉, 살(殺)의 액(厄)을 제거 소멸시켜 안심입명(安心立命)을 가져오고 나아가 행운을 맞이한다는 종교적 속성이 강한 춤이다.

출연 : 구정옥, 이순호, 김미자, 김영숙, 최복화

6. 즉흥무

다양한 장단변화에 우리춤의 정·중·동, 한·흥·멋·태의 품격을 지니며 섬세한 발디딤과 다양한 춤사위로 구성되었다.

출연 : 이보금, 강복실, 김현숙

7. 민요춤.입춤

대중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뱃노래 민요에 맞춰 기본 춤을 엮어 관객들과 함께 어깨춤을 출 수 있는 흥겨운 무대를 마련한다. 흥풀이춤의 일종인 입춤은 흥과 멋이 춤의 주제이며, 분위기에 따라 흥과 멋을 조율하면서 출 수 있는 즉흥성을 발휘할 수 있다. 특별한 춤옷이나 소도구가 필요치 않으며 장소에 따라 또는 분위기에 따라 얼마든지 춤의 전후순서를 바꾸어 출 수 있는 춤의 장점이다.

출연 : 문복순, 구정옥, 허숙자, 고번자, 이순호, 이미자, 문영숙, 김미자, 안현옥, 함훈옥, 최복화

8. 승무

우리나라 민족 춤의 정수라 할 만큼 품위와 격조가 가장 높은 춤으로써 인간본연의 희비를 높은 차원에서 극복하고 승화시켜 구도적 진리를 갈구하는 춤이다. 북놀음은 자진모리와 휘모리장단으로 현란하면서 세찬 북가락이 절정을 이르게 한다.

출연 : 추정자, 김영숙

외복합주 - 허숙자, 구정옥, 문복순, 이순호, 추정자, 김미자, 문영숙, 안현옥, 함훈옥, 김영숙



출연진



문복순



구정옥



허숙자



고번자



회장 / 추정자 (수)



이순호



이미자



문영숙



김미자



총무 / 함훈옥



이보금 (현옥)



안현옥



김영숙



최복화



강복실



김현숙

스텝



예술감독 / 윤정미



총진행 / 이성준

중요무형문화재 제45호 대금산조 이수자
태오름 민족가무악단 대표



지도 / 김예린

다락전통예술원



정재욱



박성호



전주영



이유미

◀ 의상: 신의상실, 일등의상실, 미미사 ▶ 분장: 박서정 ▶ 영상: 이브스튜디오 ▶ 디자인: 디자인영이
◀ 도움주신분- 박민신님, 조영균님, 김은식님